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일문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오늘 제6차 성찬식

“자기를 살리고 그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바실지니”
(고전 11:28)

2000년 11월 4일 부에 걸쳐 배불이된다. 성찬은 참되고 영원하신 왕의 식탁으로의 초청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몸과 피를 버는 죄가 있느니라”(고전 11:27)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의 모형이다. 그래서 성찬에는 진정한 역사가 있다. 광야를 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 뱀에게 쫓아다니던 수많은 이들에게 떡과 물과 기름을 나누어주시던 주님! 그분이 하늘로서 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

다. 그리고 그분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최후의 인생을 향하여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영적인 이요, 아름다운 만남이다. 그래서 주는 우리의 영원한 신앙이요, 우리는 그의 경건한 신부이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에 거짓이 없도록, 그분과의 만남에 거짓이 없도록, 생명의 맛을 그분의 생명을 하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나 옷 입었느니라”(갈 3:27).

제33대 장로후보 5명 모두 당선

지난주일 4부예배 후에 마련된 공동의회에서 박찬철, 이철호,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장로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전체 2,09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명의 후보가 모두 2/3표 이상의 찬성을 얻었는데, 이제 이들은 장로 장립을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임으로 이들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격려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계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더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와야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기르며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딤후 1:7-9)

성(聖)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난 수요일 저녁 임직예배, 장로 7명, 안수집사 58명, 권사 75명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눅9:23)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려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을 막론하고 한가지 요청이 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영생을 받기 위해 주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과 그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일이다. 이러한 요청은 이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변형된 적이 없으며, 단 한번도 달리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난 주 수요일 저녁, 교회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일꾼을 세웠다(제32대 장로, 제13대 안수집사, 제41대 권사). 우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드렸고, 하늘을 향해 외침이 아닌 참된 눈물의 고백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전설로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삶의 의미

를 두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안수하였다. 낮고 천한 여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백성 삼으시고, 그녀들을 통해 놀라운 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역사가 하리니 이것의 여인들을 통하여 재현되기를 기도하였다.

이제 더욱더 이들을 통해, 그리고 이들을 축복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주의 몸된 이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믿음으로 걸던 성령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마침내 그날을 보게 되리라!

금요일회를 통해 배우는 기독교 전리의 이슬배만

성경에 나타난 이슬배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모순들, 곧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개념이나 사실들은 실질적인 가치가 갖지 못한다. 우선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나 순복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말씀 전체에 대하여 깊은 믿음과 신뢰가 가장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중 이슬배만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지적인 만족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슬배만적인 내용들은 성서신학의 중요한 부분들을 균형있게 볼수 있도록, 신학을 바라보는 견해의 변위를 높히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른 감사를 갖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심오한 깊이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이슬배만은 지나간 수세기 동안에 나타내진 잘못된 가르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 이러한 오류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적당하고 일관적인 성경해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시해준다. 그리고 이슬배만은 성경의 특이함과 신적인 표현(Divine Origin)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이것은 성경이 특별하다는 것인데, 비록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적 기원이 있으며, 이슬배만은

오�히려 신적 기원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슬배만은 복음을 전할때 오�히려 좋은 도구를 준다. 왜냐하면 모순된 일이 존재한다는 것과 또 그것이 자연적인 인간 생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기독교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박의 일부본질이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슬배만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와 불신한 자를 분별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슬배만적인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적인 생활 속에 실제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삶에 대한 개념 곧 인생관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의 행실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모순이 아닌 것을 모순으로 여기는 일이다. 또 다른 것은 모순이라고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 없이 그대로 받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경이로움에 감사함은 성경의 특이함과 지혜, 또는 지음과 감화과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좀더 깨닫아 알게 하는 데 이르기까지 수 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창조심과 창조하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학 칼럼

예수님의 신성

송길환 (목사, 신교원회와 외선부지도)

인간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진실로 의로운 참인간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한 참하나님이여야 한다. 그가 참 사람이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죄 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 값을 치를 수가 없다. 때문에 구원자는 의로운 참인간이어야 한다. 또 그는 참 하나님이여야 한다.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을 함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교회의 역사에는 예비문학과 아리우스파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비성경적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이사야 63:7절과 다니엘 7:13절에서처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본(요1:1-4; 3:31; 6:62; 8:32)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전지(마24:25; 25:21-27), 전능(마3:21; 계1:8), 불변(히1:10-12; 13:8)하신 분으로 증거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요1:3, 10; 골1:16), 성리(골1:22; 요3:35; 행1:22), 죄 용서(마9:27; 막2:7-10; 루24:47; 행13:31; 25:31; 요19:29),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히1:10-12; 빌3:21; 계21:5) 등의 신적인 사역들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라고는 인정하지만 유입적인 절대주로서의 하나님으로서는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참 하나님 되신 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온전하신 신성의 문제는 기독교의 구원론에서 서로 밀어지게 되는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교리인 것이다.

ADORN THE DOCTRINE OF GOD

(Titus 2:10)

“not pilfering, but showing all faith so that they will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in every respect.”

It's amazing what a wide range of practical instruction one finds in this short letter. It's even more amazing what one finds just from today's short statement, “not pilfering, but showing all faith so that they will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in every respect” (v. 10). Paul commanded Titus to teach God's truth soundly, so that the Word of God could be honored through the lives of the people it touched. Obviously, he greatly valued the Gospel or else he wouldn't have cared so much about having it adorned. He highly esteemed the practical part of religion, and as a result he regarded it as a special kind of beauty, an ornament, a precious jewel of the Gospel. And it's with holy ingenuity that he interweaves this truth with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People try to find blessings, miracles, and all kinds of valuable things from the sixty-six different books that contain the Word of God. What many people don't realize or fail to grasp is that each and every book of the Bible totally points to or shows the Gospel. The treasure of the Bible is the Gospel! Today's Bible verse is about the Gospel. It's a really deep message about the significance of living your life in, with, and through Christ! For when you live your life in Christ, your life makes the Gospel valuable. As such, you are bidden to obey this precept so that you may indeed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in every respect.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is a name of adornment for the Gospel. It sets forth its greatness, for the doctrine of God is greatness. Even though your sins are great, the doctrine of God is greater. The Bible tells us that the punishment for any and all sin is death, but because of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there is salvation! Amen! Isn't salvation great? Isn't your safety, happiness, and hope in Christ truly great? Without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you die, with all faith in it you have eternal life. Isn't that truly great?

As a beautiful adornment,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sets forth its certainty. It is of God, not man. It comes by revelation of God. It is guaranteed by the fidelity of God. It is

as immutable as God Himself. Not only that, but it sets forth its relation to Christ Jesus. Why? Because its statement says, “God our Savior”. God is the author of it. He is the substance of it. He is the proclaimer of it. He is

love and devotion?

A method of adornment for the Gospel is simply living the Christian life. Notice how Paul says, “but showing all good faith”. Showing means that others can observe. In

*People try to find blessings,
miracles, and all kinds of valuable things from the
sixty-six different books
that contain the Word of God. What many
people don't realize or fail
to grasp is that each and every book
of the Bible totally points
to or shows the Gospel. The treasure
of the Bible is the Gospel!*

*Today's Bible verse is about the Gospel. It's a
really deep message about the significance
of living your life in, with, and
through Christ! For when you live your life in
Christ, your life makes the Gospel valuable.*

*As such, you are bidden to obey
this precept so that you may indeed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in every respect.*

the object of it. The Gospel glorifies Jesus Christ. It sets forth its authority. The whole system of revealed truth is of God. The Savior Himself is God. Therefore, He must be accepted. The Gospel itself is divine. God's mind is embodied in the doctrine of the Lord Jesus, and to reject it is to reject God. You must believe, honor, defend, and propagate this doctrine of God our Savior. What else is so worthy of your

Paul's day, bondservants and slaves were the people who adorned the Gospel. Nowadays, it is the poor servants of the humblest order. It's strange how this is the way that is set for the Christian's task. Paul mentioned that he was the least among the apostles. The cross is God's secret method. Those who say they are the greatest aren't following God's way. The way to adorn the Gospel is

through obedience. Look at verse 9, “Urge bondslaves to be subject to their own masters in everything, to be well pleasing, not argumentative.” Through your endeavors to please Christ, you will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By restraining your tongue, you will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By scrupulous honesty and trustworthy character you will show all good faith. All this good will make others admire the religion of Jesus. You need to be like that!

The way of adornment of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in general, must be adorned by your godly life. Such adornment is really assurable to loveliness, mercifulness, and cheerfulness with the Gospel. It is often a tribute to the beauty of God that honors the Gospel. Godly conversation is an advertisement of beauty. Holiness calls attention to and enhances the natural beauty of the Gospel. Godliness emphasizes the excellence of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Christians must endeavor to adorn the Gospel by strict integrity in business, constant courteousness in behavior, unselfish love to all around them, quick forgiveness of injuries, abundant patience under trials, and holy calmness at all times.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completely obey Jesus Christ and you will get super blessings from the revelation of God. I hope your life really shows that you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in every respect. This is the conclusion of all the sixty-six books of the Bible. The purpose of your life is to glorify God. The glory belongs to Him. The Lord's prayer teaches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Amen! All glory goes to God, not you. His grace is better than a priceless jewel. His Son is your treasure.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by living your life with Jesus at the center of everything you say and do. 



김성만 목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딤후 2:10)

“때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태도

디도를 향한 이 짧은 사신은 여러가지 면에서 있어서 실천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에 본문에 나타난 간략한 언급에도 즉각적으로 발견되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칠 것을 디도에게 명령하였고, 그 결과로 진리를 접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었습니

하나님의 교훈의 핵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으로부터 축복과 기적, 그리고 모든 종류의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성경의 각 권 모두가 전적으로 복음을 지시하거나 나타내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 구절도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의미있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와 함께 하며, 그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중요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훈에 순종할 것을 명령한다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에 대한 교훈을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위대성

우리의 주되신 하나님의 교훈은 복음을 위하여 장성한 이롭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위대함은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죄가 클지라도, 하나님의 교훈은 더욱 위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작고 큰 모든 죄에 대한 훈련은 사람이지만,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해서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 구원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락한 행복, 그리고 소망이 위대하다고 여기십니까? 우리의 구

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이 진실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이 교훈을 믿고 영향 돌리려, 변종하고 선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헌신할 만한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이것 외에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도를 기쁘게 하기 위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입술을 다스리고, 양심적인 정직함과 신뢰할만한 인격을 통해서 선한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선한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에 대한 신앙에 감동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경건

일반적으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방법은 경건한 삶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경건은 실제로 복음과 함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즐거움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종종 영광스러운 복음을 명예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공헌합니다. 경건한 대화는 아름다움을 선전합니다. 거룩함은 복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주목하게 하고 높아지게 합니다. 신성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의 탁월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할 때, 엄격한 성실과 행동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예의, 자신 주변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과 상처에 대한 신중한 용서, 그리고 시련에서의 낙담한 인내와 모든 시간에 있어서 거룩한 침묵으로써 복음이 빛나게 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주되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십시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마 6:13).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야 하며, 여러분에게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그의 은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을 넘겨 보십시오. 그의 아들은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십시오. ■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구절도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의미있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와
함께 하며, 그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중요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훈에
순종할 것을 명령한다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에 대한 교훈을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확실성

아름다운 장식으로써, 우리의 구주되신 하나님의 교훈은 복음의 확실성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해 전달되었으며, 하나님의 충신성에 의해 보증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처럼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밝히 말해 줍니다. 왜죠? 그 이유는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 구주”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본질이시며, 선포자이시고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복음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모든 계시된 진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구세주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신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 예수의 교훈 안에서 구제화되어지며,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충성

복음을 빛나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다하게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중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노예와 종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돌보였습니다. 오즈를 말로 하자면 그들은 가장 낮은 부류의 가난한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부파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광명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빛나게 하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마라”. 그리스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갑시다

우간다 단기평신도선교사 이순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동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곳 우간다에서의 삶이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1년 간 우간다 땅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까이 홀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저 또한 홀로 하나님과 만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1년 정도의 삶을 선교지에서 보내는 것,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일 것입니다.

처음 이 땅을 밟을 때, 뭔가 1년 간 이곳에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군은 그때의 기쁨과는 또 다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영적인 또 다른 많은 기쁨을 내게 채워 주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몰랐던, 어떤 모로기를 원했던 나의 모습들을 여지없이 계속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진정 바라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내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나를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 다. 진정 나의 하나님인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선교지에서 부족하지만 행정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함께 하는 분들의 다양한 은사로 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과, 독목성들이 모두를 받으시고 다양하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 다.

요즘의 개인적인 기도제목은 날마다 세 화와 세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만지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되도록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조금함들로 인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하시길 기다리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말건다
면서 저
스 스로
안절부절
못했던 모
습들이 얼
마나 많았던
지요.

끝으로 이곳 우간다

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와 바리사로 헌신인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다 행히 지금은 점차 퍼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전염병, 질병(에볼라, 에이즈, 말라리아, 그리고 많은 풍토병들)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간다 땅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것을 지난 1년 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통역해 주신 성도님들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 보내기

선교위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 하여 각 선교지에 성탄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선교사역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격려하며 위로하고자 성탄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탄선물을 모집하고 있으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기간 : 10월1일~11월5일
2. 견정물품 : 1) 된장, 고추장, 라면 등의 식품류 2) 의류 및 신발류(사이즈는 선교위원회로 문의) 3) 물품 선택 및 구입이 어려울 경우 선교사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현금, 4) 변질 또는 파손될 위험이 있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은 제한합니다.
3. 문의 : 선교위원회

선교사의 꿈을 품고

단기평신도선교사 후보생 민지홍

10월로 접어들면서 시작한 단기평신도선교사 훈련 과정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갖고 훈련에 임하고 있는 15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은 직장상 학교를 마친 후 늦은 밤 모여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과정은 성경, 기도, 전도, 청지기, 언어 등 선교지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외신부와 연합하여 성서동과 동대문 지역으로 외국인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스리랑카인, 몽골인 등의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새롭게 선교비전이 다져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훈련은 정탐훈련과 합숙훈련으로 좀더 구체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이번 훈련을 잘 마치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기평신도선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훈련생 모두는 많은 시련과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데 주변의 동역자들의 기도의 힘이 절실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영광이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올 날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모든 훈련과정을 잘 마쳐도록
2. 영적인 성장이 있도록
3. 영혼을 사할하는 마음이 더욱 충만하도록
4. 언어의 진보가 있도록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린1:21). 총원전도대는 현재 10개팀 80여명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전도의 미려한 방법을 통해 구원하게 하겠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힘있게 전도하는 총원전도대를 각 팀별로 취재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성도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에 더욱 힘있게 동참하길 바란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써있는 전도지를 들고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열심히 쫓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그들. 그들은 총원전도대 선봉원팀이다. 역 주변에서 항상 많은 유동 인구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늘 분주하다. 전경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계신 다섯 명의 선봉원 전도팀 멤버들은 언제나 주요일이면 주님의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또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집회에 나섰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땀방한 마음으로 스쳐지나가도 그들은 끄덕이 없다. 오히려 그들이 냉정한 반응과 각박한 모습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면 주님의 은혜를 배속 깊이 느낀다고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많이 느낍니다. 은혜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무거운 모자를 들고 가시는 할머니는 끝까지 웃음이 보라 리도 들어 드리고 길 안내를 해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호호하게 웃으며 돌아오는 지영순 팀장, 그 손에는 그분의

연락처가 쥐어져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보이지 않은 도우심의 제명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었다. 전철역 지하 도로로 내려가는 층계 밖에서만 전도하라는 의정들과 보이지 않은 심판이 있고 전도지를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눈총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이 그들을 늘 웃게 만든다. 전도의 정예부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물을 치고 싶어하던 영혼들을 기다리 지만 전도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늘 땀은 노점상 아주머니도, 차를 대다 만난 벼락이 파시는 사람에게도, 병문안 가서 만나 병실 사람들에게도 놓치지 않고 생명의 씨를 뿌리는 전도의 일꾼들이다. 전도를 시작한 동기들에 대해 묻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계산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에 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는지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김은 선전사님의 웃음 사이로 퍼지는 평안이 따뜻하다.

(원정섭 기자)

나를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유 병 규 (고등부 교사)

지난주에 고등부에서는 강남역 근처로 노방전도를 나갔다. 강남역 거리에서 전도를 확장지와 서당, 전도지, 고등부 주보를 나누어주는 고등부 학생들. 쑥스러운 그라나 기도하는 맘으로 자신이 건넨 전도지를 받아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소망하는 우리 젊은이들.

문득, 6년 전 나의 고등부시절이 생각났다. 삼성역으로 중앙운동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나아갔던 일이, 갓난아이의 믿음이었지만... 두리를 것이 없었고 한 영혼을 품으며 감사함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때...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1:16)

청년 쑥스러워했지만 전도지를 한 장 한 장 나누어주면서 복음선포에 담대해지고 그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가지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는, 내가 첫사랑의 감정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구나.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부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겨울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랑에 푸욱 빠졌던 기억이 난다. 예수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핑계지고 눈물나던 그 첫사랑의 감정. 지금은 세상의 이혼에 눈을 돌려 때론 그 고개를 숙이고 때론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았다고 고백하던 그 시절을 무한게 하는 지금의 나 생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

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골2:20)

항상 나의 고백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했던 말씀이지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믿음복음과 기생생활에 더욱 열심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귀하고 값진 젊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썩혀두고 있구나.

젊음, 말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다. 내가 된 것 같아도, 무모하다 싶어도, 도전하는 힘이 바로 젊음이다. 그러다 지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

지금 난 그 힘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썩고 있다. 주님께선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과 계획하신 땅으로 보내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부족해요. 다른 사람에게 더 적격일텐데요"

무슨 핑계가 그리 많으니 나의 머뭇거림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 가는 영혼들이 뇌리를 스쳐갔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러한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답답하고 고백해야지. '예 주님 하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영양미를 톡톡 튀고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주님, 영적으로 많이 무딘 나를 노방전도를 통해 다시 민감케 하시고 일어버린 영혼에 대해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이번 주에도 계속되어질 강남역 노방전도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또한 노방전도를 통해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 만평

글·그림/김범현



사역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함이라도 주의하라 (마태복음 6:1)

노방전도를 다녀와서

윤 지 현 (고등부)



지난 10월 29일 주일, 우리 고등부 믿음과 학생들은 강남역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다. 사실 노방전도를 위한 기도를 몇 번 드리지 못하여서 걱정이 많았을 것 같지만 준비된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노방전도를 하였다. 각각 막대사랑과 전도지를 들고서 전도를 하였는데 처음엔 용기가 없어서 친구가 전도지 나누어주는 것을 따라다니기만 하였다. 그러지만 갑자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찌고 지나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고등부로 인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변화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 이 한가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말을 걸어도 모른 채하고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를 받았다가 곧바로 버리는 사람, 딱 잘라 거절하는 사람... 나는 뿌리는 자이지만 거두시는 자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들이 전부 옥토에 떨어진 씨앗임을 믿으면서 전도를 계속하였다. 당장의 결실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거라 확신한다.

이번 노방전도를 통해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복음화 운동(총동원전도)을 준비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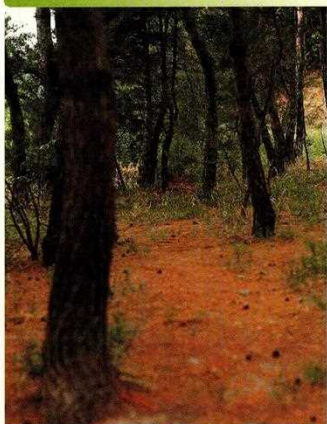
박상대 (집사, 고등부 교무처장)

고등부의 복음화운동의 목표는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젊은이로'이며 급변 복음화 운동 주제는 '그가 이루시리라' (삼전5:24), 주제 찬송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이다. 기도하며 복음화 운동을 준비해 가면서 언제나 느끼게 되는 것은 적절한 동역자를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학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이번 복음화운동은 여름 수련회가 끝난 직후부터 계획되고 차분하게 진행되어 왔다. 외형적이고 물량 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내실있고 조용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복음화운동의 주안점은 첫째 장기 결석생, 잃은 양, 찾지키며 두번째는 태신자 전도, 세번째는 노방전도였다. 장기결석생 찾기는 각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하며 아울러서 돌로스(학교전도)별로 찾아보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태신자 전도는 3주에 걸쳐 태신자를 가정하는 순서를 통해 270명의 태신자를 갖게 되었고 노방전도는 믿음, 소망, 사랑, 소그룹으로 나누어 고등부 은 지체들이 4주에 걸쳐 강남역 제일생명 사거리 주변을 지속적으로 전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복음화 운동은 63 학생들도 마음으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이 끝난 11월26일에 갖기로 하였다.

사실 이번 복음화 운동은 여름 수련회로 겨울올라가야 보아야 한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수련회에 참석한 지체들로 하여금 무릎에 대한 소명의식을 깨닫게 하고 복음사역을 감당할 때의 결단력, 창의력, 자발성을 함양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주일집회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왔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와 계획들이 하나님께 할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번 복음화운동을 통하여 은혜 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9월14일부터 모든 교사들이 돌아가며 금식기도하는 교사원래이 금식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9월과 10월에 각각 일주일 새벽기도회로, 교사를 또한 두번의 새벽기도로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번 총동원전도 주일에 130명 이상의 태신자들이 친구들과 함께 주의 간을 갖도록 기도하며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교구탐방

맛있는 충현의 만나



6교구와 13교구가 영성훈련을 가졌다. 기자는 취재에 열중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영성훈련 중 공동체 훈련의 사회를 맡게 됐다. 공동체 훈련은 성경퀴즈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동체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기자는 잠시 '주간충현' 편집회의 시간을 떠올린다.

'충현의만나' 역시 '주간충현'에서 만들어진다. 만들면서 '주간충현'은 걱정과 염려에 빠진다. 과연 만나 마나 되는 성도들이 이 '충현의만나'를 들춰볼까. 성경책도 던지고 쌓이는 판에 충현의 만남은 오죽할까. 어떻게든 볼 수 있는 아니, 보게 되는 '충현의만나'를 만드자. 그리고 그 '충현의만나'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구역탐방을 가며 확인하고 있다. 물론 탐방

간 구역에서는 '충현의만나'가 더없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구당 모범구역 한 구역씩만 가니 당연히 잘 할 수밖에. 모범구역이니까.

기자는 아주 작은 수를 생각해 냈다. 성경퀴즈를 '충현의만나'에서 내보자는 수작이다. 영성훈련은 교구의 모든 구역이 다 모였다. '충현의만나'의 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심히 걱정된 것이 본심이었지만 충현의 성도들을 믿어보자고 자부 되려였다. 문제는 9월분에서 출제했다. 10월분은 갖고 있는 성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쁜 머리로 참 많은 수를 썼다. 쉬운 문제부터 시작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로 성도들을 당황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쉬운 문제들은 쉬 지나가고 본격적인 성경문제. '충현의만나'를 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못 풀 문제들로 뽑아 놓은 고난위도 문제들이 나왔다. 기자의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난치해 할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한 문제로 빠짐없이 다 맞추고 있었다. 나중엔 오기가 생겼다. 못 맞추면 벌칙을 주고 벌칙을 준비했는데 벌칙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최후에 내기로 맘 먹었던 고난위도 문제를 중간에 내 버렸다. 이 문제는 위난 고난위라 맞추는 성도에겐 기자가 준비한 장미 한 송이를 줄 생각이었다. 사실 맞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말까 하다가 만약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9월분 '충현의만나'를 위우고 있어 맞추는 문제였다. 문제는 '4과 첫장에 나온 요절은?'이었다. 고시 공부 하듯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맞췄다. 기자는 감동한 나머지 맞춘 분께 짧은 간증을 부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던졌다. 하나님! 충현의 성도들은 왜 이렇게 착실한 겁니까...?

(권오섭 기자)

★ 양오실

현열증서 갖다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병용 성도님은 현재 요양중에 있고
곧 재입원하게 됩니다.
아직도 현열증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현열증서를 기증하실 분들을
'주간충현' 편집실로 연락 바랍니다.

15교구 노봉관(여, 43세) 성도님께,
척추 및 위에 암이 전이됐습니다.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남 시립 병원팀에서 한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그 영혼은 지금 크로이츠 펠트 야콥병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아파 눈이 설명한 상태입니다. 병원에 서도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영혼은 세상 안 된 딸이 있습니다. 사랄스런 부인도 있습니다. 그 영혼의 이름은 조덕진입니다. 그 영혼은 지금 강남 시립병원 352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 7교구

천하보다 귀한 영혼'

○ 리구역엔 '목욕탕 할머니'라고 불려주는 분이 계신다.

목욕탕 건물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의 할머니를 알게 된것은 2~3년 전 이었던 것 같다. 안면은 있었지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구역 식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할머니께서 보살이었다고 한다. 전국에 있는 절(寺)이라는 절(寺)마다 자식의 이름을 올려놓고 복을 빌러 다니셨었는데 풍파 함께 관철에 이상이 생겨 쓰러지신 다음에 침을 맞으러 다니시다가 침을 놓는 곳에서 우리교회 목사님의 설교테이프를 들으시고 우리교회에 오시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에 다니시다가 몸이 완쾌되자 감사하다고 절(寺)에 가는 실수(?)를 하기도 하셨던 사색에, 그러나 이젠 그 할머니계신 새벽예배, 금요집회를 택시를 타고 성지로 앉으신 그 몸으로 혼자 다니신다는 것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는 말씀을 잊지 못하셨다.

일흔을 넘기신 할머니는 처음엔 성경 말씀 찾기가 힘들었는데 두 번 통통하고 세번째 읽으니까 성경말씀을 빨리 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해 보였는지 모른다.

자신의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을 전도했다고 하시면서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할머니의 모습. 구역에 데리던 '난이 어려워 잘 몰라'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이해하시고 겸손히 말씀하시던 할머니.

유원결로 금요집회후 만나게 되어 같이 택시타고 집으로 향하는길에 할머니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 옆에 있던 내 손을 잡으시고 '감사하... 감사하...'를 반복하시며 기뻐하시던 할머니의 모습.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는 흔히들 말은 하지만 우리 삶에서 얼마나 가슴으로 느끼고 사는지...할머니를 보면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주님을.

(최은아 기자)

인도자의 편지

좁은문



박종남 성도님! 장점선 성도님!

전도해 놓고도 같은 구역이 아니다 보니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글로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다는 새가족부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의지하세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복권이 있으니까요. 두 성도님은 이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주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박종남 성도님! 장점선 성도님!

하나 걱정스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항상 좋지만 하고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잘 지키려면 어려운 고난과 환란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의지하세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복권이 있으니까요. 두 성도님은 이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주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남 성도님! 장점선 성도님!

이제 두 분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실 분들이지요. 무척 기쁘실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구원받아 천국갈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아야지요. 가족들과 내 친구들 말이에요. 하루 빨리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항상 주님께 기도할게요.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할게요.

(1교구 김종숙 집사)

한 생명에 대한 최고의 시간



첫 아이의 임신소식에 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나에게도 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 예언자가 신생아부터 영아부에 다녔던 것이 올 12월달이 되면 두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예언자를 임신 했음에도 IMF로 우리집에도 다름없이 타격을 받았던 그 시절, 감사는 잠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할지 그 당시로는 고민과 연민에 찌들었던 그 무거운 짐. 하지만 하나님을 접어버릴 수 없던 순간, 난 초조함과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붙들고 싶었다.

예언자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난 중증부 교사로 봉사했었다. 교사로써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나의 문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Q'하는 시간에 출애굽기를 보았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거두지도 수고함없이 아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재질없는 은을 취하여서, 육질에게 이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칠일에 육식을 부린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이 나갔지만 일용한 양식은 거두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오는 발걸음. 그렇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에 너무나도 감사드렸다.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속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안위함과 감사에 확신 속에 이 아이의 앞날에 너무나도 확신을 주시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아이를 낳은 후 그럭저럭 낙하지는 않았지만 때때마다 필요를 마시고 풍성히 채워 주심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린다.

지금은 구역예배 마리아전교회, 탁아부, 영아부를 예배 드림으로 기도, 찬양,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경청하는 아이로 자라나길 기도한다. 이제야 혼자서 찬송가를 퍼서 말도 안되는 음간사의 곡조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혼자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가 얼었다가 하며 중얼중얼하는 모습을 보면 연신 웃웃하고 기쁘게 더없이 기쁘다.

"기도하고 밥먹고 기도하고 잠자고 기도하고 뛰어 놀면 하나님이 축복해요"

영아부에서 배운 찬양, 요즘에 예언자가 울동과 함께 열심히 배우고 있는 곡 중 하나이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깊은 섭리를 스스로 깨달아 가는 지혜로운 예언자가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친구들을 위해 청원하는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 좋겠다.

영아부 예언자

어린시절의 하나님

변기 삼 (유아부 교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능히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나는 유아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린시절을 회상해 보았다. 모두가 생각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기억들도 있다.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기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하고... 그런 시절이었지만 나의 기억속에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 연습하던 것과 찬양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런데 그 시절의 생각은 지금 청년시절에 와서도 계속 기억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짐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마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개척해 깨닫힐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바로 어린시절의 교육일 것이다. 물론 어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많겠지만 어린시절 나의 하나님께 개신단원 정물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예배하고 사모사위하지 않았을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것이다. 그래서 어

린인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며 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교육을 해셔도 안되고, 교회생활과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가정과의 연계성을 가진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없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려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 영화, 비디오 등 많은 유문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해서 안심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이다. 아이들은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에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나칠 수 있고 위험하다. 하지만 아직 가시권이 완전치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맡은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아이들이 은 교회안의 아이들이라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신앙적인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

성령의 열매

'룻기(Lut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지난주에 이어서)

또한 룻기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는 진행되는 사건마다 '은혜'라는 의미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은혜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사이에 '은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구속한다'는 말이 20회나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연관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구요. 룻기의 마지막 구절과(룻4:18-22), 마태복음에는 다윗과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마1:1-5).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뿐 아니라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가 이방인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룻1:16). 진약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동일한 의 미입니다(엡2:11-22). 또한 그녀가 보아스를 향하여 "보호의 날개로 저를 덮어 주소서"(룻3:9)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랍니다(출19:4). 마치 신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은총을 간구하였던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전혀 마지막으로 룻기를 읽으시면서 참되고 실천적인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과 아들들을 잃어버린 가난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 그리고 가난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 헌신하는 보아스! 이들은 모두 가난한 자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나게 하구요. 그들이 지르는 헌신은 양들을 위해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동일한 룻이나 보아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애를 쓰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먼 베들레헴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김동하 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인듯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소리

며칠전 오후 외근을 나왔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한참을 서 있었다. 오전에 한 친구의 귀가 들리지 않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줄곧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생생 달리는 차 소리도, 사람들 타고 내리며 버스 출발하는 소리도, 바로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종알대는 교복 입은 학생들의 목소리도 한동안 말하니 아무 소리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았다.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내 보았는데 모르는 사이 3통이나 전화가 와 있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였는지, 아니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서였는지 모르지만, 벨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다. ' 과연 누구였을까? 누가 무슨 급한 일로 나를 찾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전화해 주면 좋을 텐데...' 라며 또다시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득 전화벨이 하나 들지 못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나는 '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 읽기 귀찮고 기도하기 싫은 날은 그냥 잠을 청하면서 자다가도 휴대폰 소리에 벌떡 일어나니 내 모습에 너무 부끄러워졌다.

그날 저녁 그 친구에게 세상의 소리에 문을 닫아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잔잔하고 분명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거라고 위로의 편지를 쓰며 나 자신에게도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가장 소중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지" 라고 훈장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영혼에 계속 전화벨을 울려주시며 내가 받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전화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전화를 하시면 "네" 하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오지현 기자)

주요역별			참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안보 피난민유족특별)	본당	
IV	오후 1300(유족특별)	본당	
V	오후 300 (일반유족특별)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장로교회(장로교회)
전날 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일 예배	10오전 1100 또는 700	본당	
금요일 예배	오후 700	본당	
세례기도회	오전 500	본당	